

신앙 간증
원 서
대성전강원 /이미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나의 기도는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내용이었다. 그런 나를 주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

고 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 애쓰고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도 회복되어 간절히 드리는 예배로 많은 은혜를 받으니 목소리 높여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 오셔서 응답해주시는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는 다윗을 보며 나도 찬양으로 위로 받고 찬양으로 용기를 얻으며 어려움을 견디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은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셨다.



에 가자고 권할 때마다 거절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우리 아들에 대한 기도이다. 우리 아들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고집이 센 아들은 같이 교회

했다. 그런데 지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아들의 모습이 평안하고 달라 보였다. 예배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서 ‘엄마, 저 오늘 너무 좋았어요. 교회 나가서 처음으로 가족과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드렸어요. 목사님 말씀도 가슴에 와 닿고 기뻐어요.’ 라고 아들이 고백할 때에 나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

한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 또 감사”

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착한 아들이 부모의 말에 억지춘향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에 아들을 보면 언제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아들의 구원을 위해 정말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아들이 못마땅해 집에 돌아와 잔소리를 하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그만 뒤’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올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인내하며 기도

감사한지, 감사, 감사 감사하다. 취업 준비로 공부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가정 또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백운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사랑의 용기로 바뀌었으니 받은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집사가 되기를 사모하며 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할 것이다.

백운면 소재지사업 마루리를 향하여...



<복지회관 조감도>



2012년부터 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생활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백운면 소재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다목적 광장은 토요장터와 주차장 등으로 이미 활용

초대인사
백운면 면장
신 영 철



1979년 3월 20일 백운면이라는 생소한 곳을 찾아 물어 물어 버스를 타고 백운면사무소에 첫 출근 한다. 사회 첫 걸음에 두

려움과 기대감으로 들어서는 면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곳이었다.

군대도 가기 전이라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 이곳 백운면에 와서 지금도 백운에 거주하시는 이세영, 임병순, 길대식 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따뜻한 지도와 격려로 공직자로의 기본을 다질 수 있었으며, 면민들의 농가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어렵사리 선임들 뒤따라 다니면서 평생 공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을 다져준 잊지 못할 백운면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백운면에 애정을 가지며 마음만이라도 늘 응원해 오던 곳이었다. 그러면서 어언 36년의 세월이 흐른 금년 7월 백운면장으로 다시 근무하게 되니 옛 감회가 새로워 진다.

우리지역의 모든 읍면의 명칭이 아름답지만 흰 구름이 모여드는 풍요로운 곳 “백운”이라는 멋진 이름과, 그곳에 사는 “늘 넉넉한 백운사람들”이 있어, 몇 년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 백운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을 더 간절하게 하는 것 같다. 이제 두 달여 근무하였지만 백운

“늘 넉넉한 백운 사람들”

면의 무한한 자산을 보게 된다. 다른 지역은 가뭄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볼 때, 가뭄도 덜 타는 복 받은 지역이란다.

국민가요 “울고 넘는 박달재”가 소재한 마을이라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있으며 농촌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근소하나마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으며 건축신고 또한 최근 연간 100건이상 신청되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100억 원을 투자하는 백운면소재지(평동

1,2리, 원월) 종합정비사업과 56억 원을 투자하는 박달재권역(화당,덕동,운학) 마을종합정비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리솜리조트, 박달재휴양림, 덕동계곡 이용객 증가, 계곡 주변의 전원마을, 펜션과 별장 등이 우리 백운면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지리적으로 원서전을 중심으로 비옥한 방학들과 도곡들, 원들을 바탕으로 백운산에서 동으로는 구학산과 시랑산으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삼봉산과 천등산으로 이어진 양 산줄기의 보호를 받으며 생명의 터전을 적셔주며 백운면민들에게 생활의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앞으로 백운면이 좋아 삶의 터전을 옮겨오는 많은 타지주민을 따돌이 맞아주고 주민상호간 배려와 존중으로 화합하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백운면에서 공직생활의 마지막 열정으로 면정을 이끌어 우리 면민들이 추구하는 “늘 넉넉한 백운 사람들” 슬로건에 걸맞게 인심 좋고 풍요로운 백운면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 할 수 있기를 소원해 본다.

수요 초청간증
서울정형외과 원장
제천제일교회 장로 / 오홍룡

저는 1958년 서울 신당동에서 태어나 장로님이신 아버님과 권사님이신 어머님 사이에서 비교적 유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앙적으론 약간의 방황은 있었지만 남들처럼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 등을 하며 순탄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졸업 후 대학 병원의 바쁜 생활과 전방에서 군의관 생활을 하며 제대로 주

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 가지 못하며 저의 믿음은 점차 식어져 갔습니다. 군의관 시절 만난 아내와 첫 아들을 둔 가운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행복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1992년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어 제천 서울병원에 정형외과 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바쁜 생활만 하다가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원생활



적은 두고 있었으나 주일도 병원 근무를 하고, 오직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기

에 반해 이듬해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되었고 운영하는 병원은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제천제일교회에

어난 후 패혈증으로 소아중환자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의 눈물의 회개와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로 살게 되었고 저는 다시 믿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몇 년 후 다시 직장암 3기 말이란 큰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또한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다시 찾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후 해외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며, 교육부 교사로 봉사하며 해외 선

“고난과 시련을 통한 새로운 삶”

타 예배와 사역과 봉사는 전무하였습다. 그러던 저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걱정하시고,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했던 제게 여러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지기 원하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7년 만에 둘째를 허락하셨는데 그 아이가 7 개월 만에 이 세상에 나왔고, 태어날 당시 몸무게는 1.2Kg이었으며 태

교사님과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늘 믿음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